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문화재청과 함께하는 사적 가꾸기 참여

2022. 11. 15.

2022. 11. 15.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임직원들이 창경궁 가꾸기에 나섰다.

CFS 임직원 등 40여 명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 관람로 주변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문화재청과 함께 창경궁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자원한 참가자들은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다양했다. 각자 평소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날만큼은 한마음으로 5시간가량 관람로 주변 정비와 낙엽긁기 등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낙엽이 가을 정취를 더하지만 자칫 관람객들이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데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창경궁 관리소 관계자는 “창경궁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약 5만 그루의 나무와 함께 조성된 관람로는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하다”며 “11월에는 관람객들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낙엽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데 CFS 임직원들이 낙엽긁기 등에 동참해주셔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창경궁을 만들수 있었다”고 전했다.

CFS 관계자는 “물류센터 별로 각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FS는 지난 9월에도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인애농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하고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CFS 임직원 30명이 참여했고 포장된 농작물은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등 40여명은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 관람로 주변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